

청각 장애아 위한 불교 일일캠프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요”

청각장애아들을 위한 불교체험의 장이 한국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7월 10일, 11일 통도사 옥련암에서 열리는 청각장애아 불교일일캠프는 청각장애아 통합 학부모회(회장 전진순)가 평소 청각장애아들을 위한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도원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청각장애아들을 위한 법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불교현실에서 청각 장애를 가진 이들이 불교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 따라서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이번 캠프가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매년 수련대회를 열 때마다 장애아들을 꺼려하는 시선 때문에 수련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청각장애아 통합 학부모회는 고요한 산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교문화를 접하고 참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7월 10~11일 통도사 옥련암서

6~19세 까지 타종교 참가 가능

수학교실·법회 등 프로그램 구성

청각 장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불교체험 일일캠프는 지역과 종교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벌써부터 신청자가 80여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세부터 19세까지의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진행되는 불교체험 캠프는 도원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과 불교 수화 강의, 학년별 레크리에이션, 영어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프를 추진한 전진순 청각장애아 통합학부모회 회장은 “천주교 신자지만 이번 불교체험캠프를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불교미술에 관심이 많은 딸 아들과 함께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청각장애아 학부모회 이규연 회장은 “불자지만 집에 가고 싶어도 수화 법회를 하는 곳이 없어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청각 장애아와 학부모를 위해 이런 행사가 열리는 너무 기쁘다”고 반가움을 전했다.

법회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한 농아인의 눈물을 목격한 뒤로 농아인을 위한 포교 노력을 세운 도원 스님. 스님은 청각장애아들을 위한 이번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청각장애아들을 위한 불교 수학교실, 수화 법회, 수화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다. 특히 7월 29-8월 2일까지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여름 수련대회 준비를 위해 수련회 경비, 필요물품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스님은 “청각 장애를 가진 단 한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마음의 지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장애인 포교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011-9940-6455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진여원·내원정사 호국 영령 추모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과 내원정사(주지 정린)가 호국 영령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포교원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23일 화명동 제3근린공원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 위령제를 열고 위령제 열고 보훈가족에 장학금 지급식도 함께 가졌다.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한 호국영령 천도재에 이어 1부 행사로 호국영령 추모식 및 장학금 전달식, 2부 행사로 보훈가족 점심 대접 및 다과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배상도 북구형장, 박계환 호국영령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장,

보훈가족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호국 영령을 추모했다.

125년대 6세대 장병의 조총발사로 시작된 이날 추모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축원, 헌다, 헌화 및 분향에 이어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힘써온 우복남,

김미지 씨 등에 보훈가족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또한 한승업(아주대), 최연수(창원대) 등 미망인회와 유가족회 자녀들에게 장학금 2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린은 6월 25일 제24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천도제 및 선망부모천도 지장기도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 기자

경산 제석사 원효성사 다례제



원효성사 탄생 1387주기 다례제(사진)가 6월 20일 오전 경산 제석사 원효성사전에서 거행됐다.

민족의 스승인 원효성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다례제는 조계종 원로위원 성수 스님과 은혜사 부주지 선광 스님, 제석사 주지 적연 스님, 변태영 경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육법공양, 원효성사 연보소개, 주지 적연 스님 인사, 백준호 경산시장과 변태영 경산시의회의 축사, 법다 스님의 원효성사 제1387주 탄생사로 이어졌다. 배지선 기자

영천 충효사 산신대제·경로잔치



경북 영천 충효사는 6월 20일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와 공동으로 '제1회 보현산 산신대제와 경로잔치' (사진)를 열었다.

법어사 전제대화상 홍교 스님, 영천 사람 연합회장 법의 스님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충효

사 주지 해공 스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신화한 호국영령의 값진 회생에 머리 숙이고 이런 회생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산신대제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대구, 어린이포교 활성화 모색 “까페 개설 통한 정보 공유”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 스님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각 사찰 어린이 법회 및 불교 유치원 선생님 십 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 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6월 20일 보현사 법당에 모인 선생님들은 정기적인 모임과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연합회 대구지구 카페를 개설해 어린이 법회 정보 공유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동화사는 올해 수련회부터는 대구지역 선생님을 주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어린이 지도자양성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 스님은 “어린이의 인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사교를 가지고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구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의 모임은 지난 2월 14일 첫 간담회 이후 이어진 세 번째 모임으로 대구지역 어린이 포교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배지선 기자

보현사 343일 영가천도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직할포교당인 보현사주지 원일이 6월 23일 500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7일동안 계속되는 금강경산립법회를 봉행하고 49재를 일곱 번 행하는 343일 영가천도법회를 시작했다.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은 “산자와 죽은 영가가 고투 법계에 들 수 있으므로 금강경산립법회 봉행과 함께 시작된 343일 영가천도법회는 인간 삼세를 부처님 공덕으로 밝히는 대작불사”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퇴직교사, 문화·생태해설사로 나선다

“범어사 살살이 안내해요”



범어사 경내 석조를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어르신들.

금정구 노인인력지원기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환

범어사를 찾은 학생들에게 범어사 문화재와 숲의 생태적 가치를 설명해주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7월부터 범어사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금정구노인인력지원기관(관장 강규성)이 6월 한달 동안 노인사회적 일자리 창출

을 위해 문화유산해설사, 숲생태해설사 과정을 신설, 이를 수료한 60명의 어르신들이 범어사의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일에 나서기 때문이다.

“범어사의 가치는 내가 알린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어르신들은 7월부터 5개월 간 범어사 문화재와 범어사 계곡과 금정산 숲 생태를 알리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퇴직 교사들이 대부분인 문화해설사, 숲생태해설사 수강생들은 금정구 지역

유치원, 초·중·고 학교와 연계 자연학습장의 체험 교육을 실시하며 오랜 교육 경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갖는다.

6월 23일 문화유산해설사 과정 막바지 교육이 한창인 강의실에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관장 경선 스님의 강의가 한창이었다. ‘범어사의 역사와 고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는 범어사의 창건설화, 범어사의 유래, 범어사를 거처간 의상대사, 표훈대덕, 낙안선사, 동산 스님 등 고승들의 일화까지 곁들여 흥미를 더했다. 82세로 최고령인 김반구 어르신을 비롯 29명의 어르신들이 등록한 문화유산해설사 과정에서는 부산의 역사문화, 불교사, 부산지역의 사찰, 불교건축, 불화, 불상, 불탑, 불교미술 등의 이론수업과 실습 과정을 수료하고 범어사 계곡과 금정산 남문 등산로 코스로 나눠 숲 생태 해설을 받게 된다.

30일 수료식 이후에는 5명이 한 조를 이뤄 당간지주, 일주문, 불이문, 7층석탑 등으로 이어지는 범어사 문화유적 등에 대해 해설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숲생태해설사 과정에서는 숲생태학, 수서생태, 숲속 동물, 산림특색 등의 이론수업과 실습 과정을 수료하고 범어사 계곡과 금정산 남문 등산로 코스로 나눠 숲 생태 해설을 받게 된다.

문화유산해설사 과정을 듣고 있는 김홍주(74.동명초 퇴직교사) 어르신은 “나이는 많지만 제학생들을 다시 만나 문화재의 가치를 알려줄 것을 생각하니 교직 생활할 때로 돌아가는 듯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정구노인인력지원기관은 범어사 인근 농원에서 이뤄지는 유기농 사업, 백의민족 세탁사업, 떡방앗간 등의 사업을 통해 15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의 보람과 기쁨을 되찾게 하고 있다. (051)516-6898 천미희 기자

동화사·해인사 강원 화합다져 단오맞이 체육대회 개최



6월 22일 단오를 맞아 해인사와 동화사 강원스님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화마로부터 삼보와 가람을 보호하기 위한 소금물기 의식을 갖는 등 지역의 각 사찰에서는 단오절 행사가 진행됐다.

팔공산 동화사 강원스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팔공산 청소년수련관의 잔디구장에 모여 축구, 족구, 배야구, 600m 계주를 하면서 스님들 간의 화합을 다졌다.

한편 이날 해인사에서 경내 축구장에서 하부중일 축구(사진), 족구, 족다리기, 계주의 경기가 펼쳐졌다. 이날 종합 우승은 대교반에서 차지했고, 종합준우승은 사교반 스님들이 차지했다. 배지선 기자

여불련대구지부 무료급식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대구지부는 6월 19일 달서구 피산동 삼성아파트 북쪽 강강공원에서 무료급식행사를 열었다.

이날 여성불교연합회 회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찾아온 달서구 피산동, 파호동 일대의 홀몸노인 100여명에게 따뜻한 한 끼 공양을 대접했다. 배지선 기자

빙의 영가와와의 대화를 통한 영치유법

최면 「전생, 빙의」 특별 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교육내용

- 1.최면이란 및 실행 : 최면개론, 차기최면, 타인최면 유도기법, 자율훈련법 등 최면의 공명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 2.연령퇴행 기법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통찰시키고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 3.전생퇴행 기법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 4.미래전행 기법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비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설계하여 자신감을 고취 시킨다.
- 5.빙의령 치유 기법 : 빙의령 확인법, 영가와와 대화기법, 천도확인법, 악령제압법, 제 삼자를 통한 원격 빙의 확인 및 제거법 등 빙의 된 영가와와의 대화를 통한 핵심감정 및 문제파악, 해원과정, 재집신 방지 영치유법.
-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운영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한다.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교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한국전생빙의 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배가 깨달음을 통한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된 영가 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영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인을 찾고 깨닫게 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제주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 중략 -

00사00합장



大野 仁 宰 様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심신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 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최면아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교육기간] 2004년 7월 8일 /15일 /22일 /29일 /8월 5일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7시 까지(5주간)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출장강의 가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